

특허청, RFID · USN 기술세미나 5월16일 개최

특허청은 5월 <발명의 달>을 맞이해 5월16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(특허청 서울사무소 19층)에서 국내 RFID · USN 관련 IT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RFID · USN 기술과 특허 세미나를 개최한다.

RFID는 전자 칩에 정보를 내장하고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물품정보를 수신 · 처리하는 기술이고, USN은 RFID 등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감지(센서)해 정보들을 수집 및 처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로서,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.

세미나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, 한국RFID · USN협회 후원으로 RFID · USN 시범 · 확산사업 향후 발전 방향, RFID · USN 주요 특허 이슈와 대응전략, 특허청의 주요 정책 소개, 특허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자금 정보제공 및 활용전략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.

특허청 관계자는 “세미나를 통해 RFID · USN 관련 IT 기업과 연구원들에게 RFID · USN 관련 기술개발 방향설정 및 특허전략 수립뿐만 아니라, 특허기술의 사업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”으로 기대했다.

<화학저널 2008/05/15>